

# 해 외 낙 농 소 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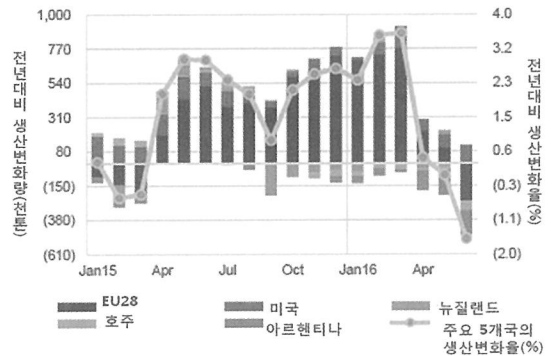


조석진  
협회 낙농정책연구소 소장

## 주요 수출국의 우유생산 및 유제품 가격추이

〈그림 1〉은 주요 유제품 생산국의 전년 대비 원유생산 및 유제품가격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우선 원유생산의 경우 2015년 5월과 2016년 3월에 각각 정점을 형성한 후 하향추세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가운데서도 2015년 4월 이후 2016년 3월까지 EU의 생산증가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이는 2015년 3월 말로 EU의 쿼터가 폐지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원유생산 또한 미미하게나마 증가를 이어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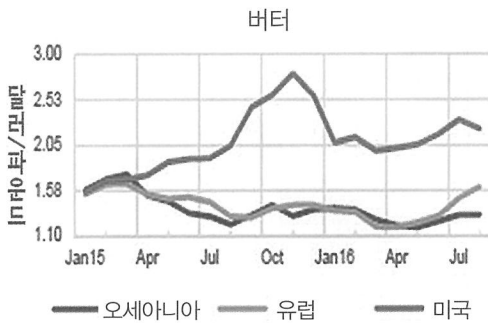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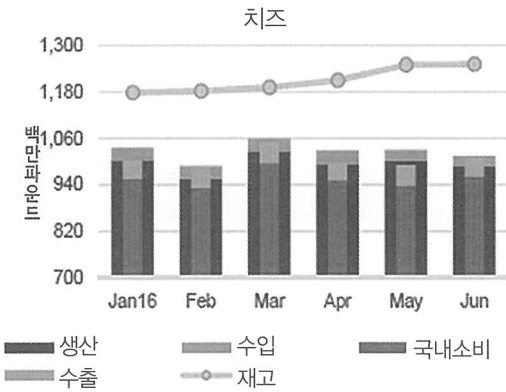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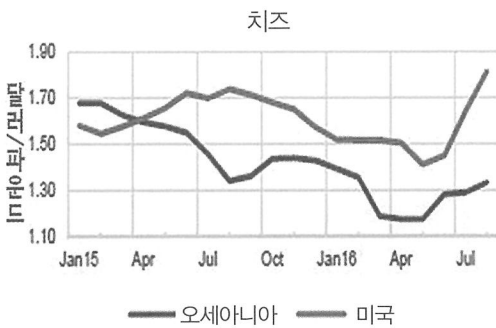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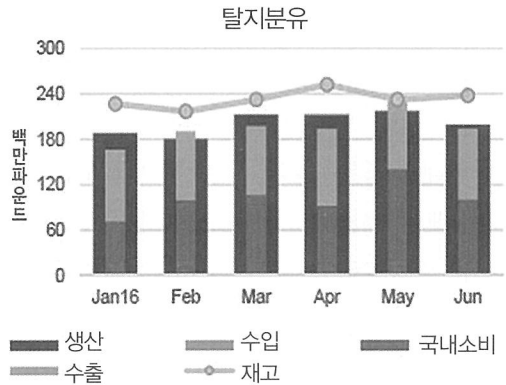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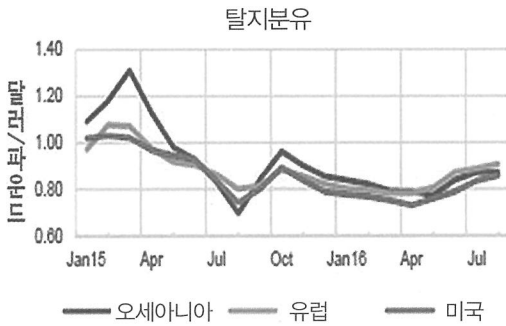
그 외 EU와 미국을 제외한 오세아니아와 아르헨티나의 원유생산은 최근 국제시장의 가격하락을 반영하여 원유생산이 전년 대비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2016년 6월 현재 주요 5개국의 원유생산이 전년 대비 1.6%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시장의 유제품가격이 회복되기까지 당분간 원유생산은 정체 내지 감소 추이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 주요 5개국의 전년 대비 원유생산 변화 추이 (15. 1~16. 6)

자료: USDEC

〈그림 2〉는 주요 유제품의 가격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우선 탈지분유의 경우 모든 시장에서 2015년 3월 이후 하락을 나타냈으나 2016년 4월 이후 미미하게나마 상승추세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비해 치즈는 오세아니아와 미국의 가격추세가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미국의 경우 2015년 8월을 기점으로 하락하던 것이



〈그림 3〉 주요국의 유제품 가격추이(\*15. 1~16. 6)

자료: USDEC

〈그림 2〉 주요국의 유제품 가격추이(\*15. 1~16. 7)

자료: USDEC

2016년 5월 이후 상승하고 있다. 이에 비해 오세아니아의 치즈가격은 미국과 유사한 추이를 보이면서도 2016년 5월 이후의 상승추이가 미국에 비해 매우 미약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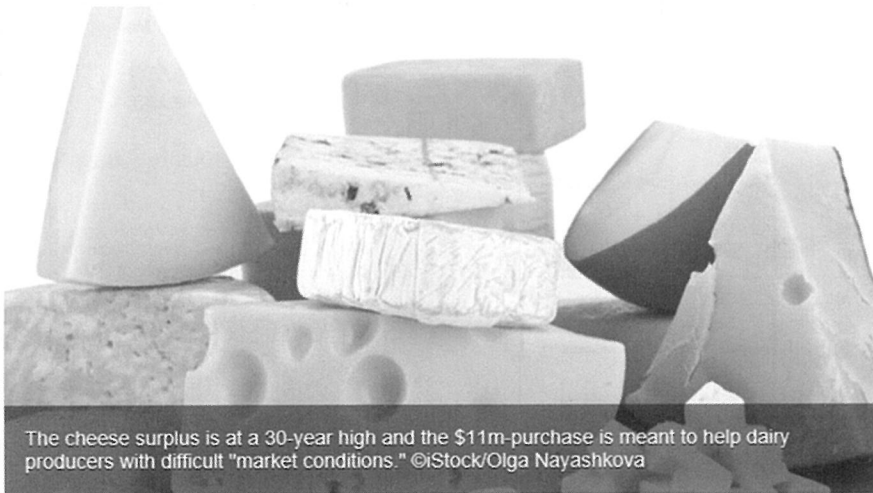
버터가격은 유럽과 오세아니아에 있어서 2015년 3월 이후 하락 내지 정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 다만 2016년 5월 이후 유럽과 오세아니아의 버터가격이 약간의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금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미국의 버터가격은 2015년 11월까지 급격한 상승추세를 나타낸 후 다소 하락하였으나 유럽과 오세아니아에 비해 아직도 상당히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그림 3>은 2016년 미국의 탈지분유와 치즈 수급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우선 탈지분유의 경우 국내소비와 수출이 유사한 추이를 보이는 가운데 1월에서 4월까지 국내소비의 저조로, 4월 현재 재고가 약 2억 4천만 파운드를 기록한 후 5월에 국내소비가 일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재고가 하락하였으나 6월 이후 국내소비의 감소로 재고가 다시 늘고 있다.

이에 비해 치즈는 2016년 5월까지 국내소비가 꾸준히 늘었으나 그 후 정체를 면치 못함에 따라 재고가 다소 늘고 있다.

출처: USDEC  
<http://www.usdec.org/research-and-data/market-information/dairy-data-dashboard>  
자료해석: 낙농정책연구소 소장(영남대 명예교수) 조 석 진

## 미국 농무성 공급과잉해소를 위해 치즈매입



미국 농무성은 민간이 보유 중인 치즈재고로부터 약 495만 톤을 매입하여 전국규모의 푸드뱅크사업을 지원함으로써 30년 만에 최고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과잉재고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현재 미국의 치즈재고는 금액으로 12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원유공급과잉에 따른 것으로, 원유생산을 줄이지 않는 한 해결방안을 찾기 어렵다.

매입량 중 2천만 달러에 해당하는 양은 미국 농무성의 「영양보조프로그램」에 의해 저소득가계에

공급함으로써, 정체된 치즈시장으로 인해 지난 2년간 수익이 35%나 감소한 낙농가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 수요에 대한 대응

그동안 미국 농무성은 의회, 전국농민연합, 낙농가연합 등으로부터 신속히 유제품시장에 개입할 것을 요구받아 왔다. 미국농업법(1935) 32항은 미국 농무성으로 하여금 2016년도 예산을 활용하여 잉여식품시장에 대한 개입을 통해 「영양보조프로그램」에 의거 푸드뱅크 및 사정이 어려운 가게를 도울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 같은 사태와 관련하여 미국 농무장관 Tom Vilsack씨는 “최근 유제품시장의 수급불균형으로 낙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푸드뱅크가 계속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그는 “금번 미국 농무성의 치즈시장개입은 강력하고도 포괄적인 소득안정장치로, 30년 이래

최고수준에 달한 치즈의 재고감소에 기여함과 아울러, 고단백식품인 치즈를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의 식탁에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그는 미국 농무성은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식품수급의 불균형해소를 통한 시장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 유제품가격에 대한 긍정적이면서도 조심스런 전망

미국 농무성이 올 후반기에 유제품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가운데 낮은 국제시장가격, 생산증가 및 재고누증, 수요감소 등의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유제품시장이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농무성은 금후에도 시장상황을 계속 주시하면서 필요하다면 올 가을에라도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출처: Dairy reporter.com(by Mary Ellen Shoup, 2016, 8.23)  
감수: 낙농정책연구소 소장(영남대 명예교수) 조 석 진

